



지난해 재개관한 국립광주박물관이 올해 더욱 풍성해진 관람객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박물관에 가면 감상만 한다고요?

그러보고, 이야기 듣고...  
우리의 옛 것 배우러 가요

과거 박물관의 기본 기능은 유물을 발굴·연구하고 전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람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이색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를 개발하는 등 교육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9월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작업을 완료하고 재개관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이 우리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토요일 야간 개장을 연중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박물관 이색 전시 감상하세요 = 광주박물관은 지난해 리노베이션을 통해 전시실을 불교미술실과 선사문화실, 농경문화실, 고대문화실로 나눴다. 또 1층 중앙 계단을 철거하면서 넓혀진 2층 전시실에는 재미난 공간도 첫 선을 보였다.

올해 광주박물관은 이들 전시실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타지역 박물관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순회 전시와 전남 22개 시군의 유물과 역사를 조망하는 전남의 역사문물

국립광주박물관, 관람객 대상 교육기능 강화  
이색프로그램·체험행사...연중 토요일 야간개장

전을 연다. 오는 3월1일~27일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명·청회화'전에는 중국 절강성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화백인 절파(浙派)의 시조 명나라 화가 대진(戴進·1388-1462년)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산수도 등 98점을 선보인다.

또 청나라 말기 오창석(吳昌碩, 1844-1927)의 석곡도(石菊圖)까지 국내에 소장된 명청시대 산수화와 인물화, 화조화 등을 전시한다. 전시기간에는 어린이박물관 체험실에서도 중국 그림 그리보기 등 체험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광양지역의 유물과 근현대사를 함께 소개하는 '전남의 역사문물 전·광양'(10월1일~12월4일)은 전

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풍성한 작품이 출품된다. 이 밖에 유물 보존 처리 과정을 소개하는 '박물관과 보존과학'(7월 26일~8월 28일), '광주전남유적발굴조사 성과전'(연 4회·기간 미정), '박물관과 교육전'(연 2회) 등 특별한 전시가 풍성하다.

◇더욱 전문화된 교육의 장 =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토요일 야간 개장을 올해는 연중 확대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9시까지 계속되는 '토요문화마당'은 ▲큐레이터와의 만남 ▲어린이를 위한 공연 ▲박물관 옛 이야기 ▲특별강좌 순으로 펼쳐진다. 매달 셋째주 토요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박물관 옛 문화이야기'는 옛 그림을 '대화와 눈술'을 통해 이해하는 수업이다.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 10인의 작품을 보며 조선시대의 사회와 역사, 경제, 지리,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오는 3월19일에는 '자화상'의 공재 윤두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토요문화마당' 참가를 원하면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이 밖에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인 ▲제5기광주박물관 유래카(4월11일~11월 2·4주 토요일) ▲뮤지엄 스테이 1박2일(8월 중) ▲박물관 내 천구(1~12월 연중) ▲우리 학교 속 박물관 교실(연중) 등이 펼쳐진다.

또 청소년들을 위해 ▲1318 박물관을 클라라다(연중) ▲수험생, 문화 속 박물관(11월~12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의 062-570-705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불교계 예술인 총출동 '부처의 자비' 실전

다문화가족 후원 음악회  
'귀 열리니 마음 열리네'  
내달 2일 광주문예회관

다문화 가족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따뜻한 공연이 마련됐다. 3월 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귀 열리니 마음 열리네'. 조계종 광주·전남전법단(공동 단장 도제스님·원광스님)이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이 주관하는 이번 자선음악회를 위해 불교계 예술인들이 총출동했다. 범능스님을 비롯해 불교

명상 음악가 지연스님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재능공양을 한다. 성마스님의 바라춤으로 막을 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천운음악단의 '타'연주와 지연스님의 '차나 한잔 하고 가계' 등의 노래공연, 이복순(광주시립극단 단원)씨의 '배 띄워라', '심청가'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범능스님이 '푸른학으로' 등의 곡을 통기타 선율에 맞춰 선보이며 광주전남불교연합합창단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등을 찬불한다. 또 광주지역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로 구성된 대광사 어린이합창팀 '해 뜨는 다문화어린이 합창단'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등의 노



범능스님 지연스님  
래를 울동을 곁들여 선사하고, 가수 이정숙씨가 출연해 '숨어우는 바람소리' 등 대중가요를 부른다. 이날 공연 수익금 전액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후원금으로 쓰인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62-385-131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바람에 하늘거리는 솔숲의 여유

변재현 개인전...24일~3월22일 광주신세계갤러리

야트막한 산자락을 지키고 있던 소나무는 가장 익숙한 고향 풍경이다. 서양화가 변재현씨가 오는 24일~3월22일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여섯 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솔바람'을 주제로 지난 3여 년 동안 지리산과 화순 등지를 돌며 화폭에 담은 소나무 연작 등 30여 점을 선보인다.

장대한 기개와 질박한 생명력의 상징인 소나무의 특징을 형상화했고, 바람에 하늘 거리는 소나무 숲의 여

유와 멋을 곁들였다. 또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를 배경으로 펼쳐진 소나무는 마음의 평온함을 준다. 남도의 풍경에서 소나무를 빼놓을 수 없듯, 소나무를 배경으로 강이 흐르고, 농부들이 일하는 아늑한 장면을 표현했다. 함께 선보이는 '솔바람' 연작은 흔들리는 소나무 잎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화면을 압도하는 푸른 빛과 솔바람이 전해주는 음악적인 요소를 회화로 승화시켰다.



'솔바람'  
목포대 미술학과 나온 뒤 조선대 대학원 순수미술학과 석사, 박사과정 수료했다. 광주와 미국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아름다운 산하'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고구려대 교수, 한국미술협회, 한국색채학회, 광주미술협회, 에펠 드 목포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울림' 정기공연 오늘 빛고을국악전수관



대금연주단 '여울림'(단장 채광자·사진) 네번째 정기공연이 22일 오후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지난 2008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울림'은 이날 공연에서 서용석류 대금 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를 들려준다. 또 이민수씨가 작곡한 '사랑의 꽃', 정약함주 '염양춘' 등을 선하며 남도음악의 기본적인 선율인 '남도굿거리', '성주골', '진도아리랑'을 이복순의 소리로 들려준다. 문의 062-261-4002 /김미근기자 mekim@kwangju.co.kr

'백석' 미공개 시·산문 6편 발굴

김재용 교수 '백석전집' 개정판 펴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시인 백석의 미공개 시와 산문 각 3편이 발굴됐다.

김재용 원광대 국문학 교수를 최근 '백석전집'(실천문학사) 개정증보판을 펴내면서 시 '석탄이 하는 말' '강철장수' '사회주의 바다'와 산문 '막심 고리키' '마르샤크의 생애와 문화' '이승과 그의 우화' 등 새로 발굴한 작품을 실었다.

북한에서 발간된 동시선집 '새날의 노래'와 잡지 '아동문학' 등에 수록됐던 시와 산문으로, 1962년 말부터 창작 활동을 중단한 백석의 마지막 집필기 작품들이다.

김 교수는 "1961년 유배 당시에 쓴 시라는 점에서 친북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며 "그러나 1950년대 후반의 산문에는 북한 주류문화와 긴장 관계에서 자기 색깔을 지닌 백석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제주도 관광열차 여행 고객사은행사**

똑같은 제주도는 싫다. 올 봄에는 **신제주관광 명소만 골라 탐방하는 한라산 관광열차여행으로 다녀오세요!**

배타고 갈 필요 있나요? **왕복항공 제주도 여행 3박4일**

**상품1** **올레길+신제주 관광명소 탐방 3박4일**  
**₩179,000~** 매회 2명이상 출발보장!!  
**광주왕복항공**

**상품2** **마라도 관광+우도유람선 3박4일**  
**₩199,000~** 매회 2명이상 출발보장!!  
**최고 인기 상품**

포함일정 : 곶자왓 생태숲 및 올레길 체험, 유리의성, 카메라야홀or평화박물관, 퍼시픽랜드, 휴애리자연생활공원, 제주 에코랜드 생태공원 관광 열차 체험, 제주조랑말체험, 휘닉스아일랜드 해양공원, 해녀촌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일반호텔(5-6인실), 관광차량, 식사, 일정내 관광요금, 여행자보험  
공통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팁(1인10,000원), 선택관광, 유가할증료 ※ 관광호텔 2인1실 이용시 30,000추가(1인)

※365일 제주도 항공권 확보 ※제주도 전지역 리조트 / 호텔 호남 총판 대리점 ※제주도 전지역 골프장 호남 총판 대리점 ※2박3일 패키지, 단체여행, 렌트카 자유여행, 관광지 할인쿠폰 판매 가능.

협찬 | **KOREAN AIR** **에어 센터** 투어클럽&스피드 골프 투어 **062)382-8201**